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럽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정치 떠받들시며 인민의 권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시려는 분,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서 당과 국가가 해야 할 일, 나아가길 진로를 찾으시려는 분, 행복에 겨워하는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을 더욱더욱 즐기게 이어가시는 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초겨울에 억수로 쏟아지는 찬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외투자락이 흠뻑 젖도록 이채어경을 이룬 포구며 사업소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었다.

물고기행 동저장실에까지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물고기산을 바라보시며 더욱더욱 절음을 때지 못하시었다.

찬비에 젖었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외투에는 하얗게 성애가 불리었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과 병사들에게 물고기를 먹이게 된 것이 못내 기쁘시며 보시오, 물고기가 아니라 금피들을 쌓아놓은 것 같지 않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안에는 기쁨이 넘쳐있었지만 그이의 옷자락에 맺힌 하얀 얼음발들을 보는 일꾼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사진을 받아 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

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은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방에도 뜨겁게 이어갔다.

어느해인가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이 공방에 또다시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천의 감자가루를 생산하여 산같이 쌓아놓은 풍경을 환한 미소속에서 바라보시면서 지난해에 감자저장고에 쌓아놓았던 감자들이 오늘은 감자가루산이 되었다고, 훌륭한 풍경이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다.

사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방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구체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것이고 북부고산시대에서 처음 보는 감자작황과 감자가루산도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헌명한 로고가 안아온 것이다.

이날 일꾼들이 감자가루를 보며 저저마다 밀가루같기도 하고 우유가루같기도 하고 할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자가루때문에 하도 마음을 써서인지 자신에게는 뼈가 부러지도록 보인다고 말씀하시었다.

정녕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분, 인민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 이시기에 인민들이 리용할

주야 방역전장들을 찾으시면서 명철한 방략들을 가르쳐주시고도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이 너무도 가슴아프셔서 가정에서 쓰셔야 할 상비약품까지 생활이 어려운 세대들에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그이의 불같은 인민사랑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는가.

참으로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으로 이어져왔다.

하늘도 감복할 그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찬정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역구, 송화거리, 화성거리를 비롯하여 수도의 곳곳에 사회주의 문명을 자랑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사회주의변화거리들이 일떠서고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곳곳마다 행복의 별천지,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으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양덕온천목욕휴양지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의 문화휴식터, 문화정서생활기지가 도처에 펼쳐졌다.

이뿐이 아니다. 새세대들이 새 교복을 입고 우리가 만든 《소나무》책가방, 《민들레》학습장을 쓰면서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제의 혜택속에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자라나고 있고 황금산, 황금해, 황금별의 새 려사가 창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민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겨주시면서 서도 언제나 만물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 한 대상견설착공식에 참석하신 자리에서 최근에 평양시안에 여러 창조물도 현대적으로 일떠세웠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으며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당의 높은 리상과 포부에 비해볼 때 작은 모래알이라고, 이런 작은 한알한알의 모래알을 쌓아서 큰 산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없는 인민사랑의 세계가 어려있고 공화국인민만이 누리는 더없는 행복과 크나큰 행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자신께서는 인민의 믿음이면 된다고, 자신에 대한 우리 인민의 믿음만은 꼭 지킬 것이라고,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하기에 이 땅의 천만자식들은 가슴속에 차넘치는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묘의 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시련과 난관이 닥쳐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진정,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난해에도 중증철혈 막아서는 고난을 웃으며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제일 힘겨운 로고란 로고는 다 바치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면서 우리의 생명과 후대들의 행복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우리 원수님, 그래서 새해를 맞으며 원수님을 우러러 고마움의 끈을 삼가 드리고 고마움 다녔는데도 오히려 그이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니 송구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우리 당은 당을 진실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 미래의 휘황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새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은 머지않아 천하제일락원, 천하제일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를 것이다.



림명호

위대한 공민

공민! 사람들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나 무도 범상하게 불려오는 말이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에게 있어서 공민이라는 이 말은 절세위인의 불멸의 위인상과 함께 깊은 의미속에 새겨져 있다.

해방후 어느 날 저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한 일꾼의 집에서 있는 일이다.

밤상을 마주하고 앉았던 그 일꾼은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수여 받은 공민증을 꺼내 보였다.

그것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아버지도 공민증을 받았다고 물었다.

《아무렴, 김일성장군님께서도 공민증을 받으셨다.》

《에? 장군님께서도...》

가족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꾼은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꾼에게 자신에게는 왜 공민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공민증의 주의사항에는 공민은 누구나 다 공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것은 나라가 구체적인 법적요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야 되겠는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 자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나라에 복종하는 공민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나라에 복종하는 공민!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에 는 그대로 공민의 법적의무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하시려는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품모가 비껴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민증을 한시도 자신에게서 떼어

놓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공민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시었다.

새 조국건설로 힘차게 약동하는 공화국땅에 기쁨과 행복이 차넘치던 어느해 8월이였다.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어느 한 약속터를 찾으시었다.

당시 이곳 농민들은 8.15를 맞으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이 약속터앞에 술문을 만들어 세우고 질서를 잡기 위해 수리를 관리하고있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변경치를 바라보시며 경비를 서고있는 농민에게 다가가시였을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미처 알아볼 수 없었던 그 농민은 《저...미안하지만 증명서를 좀 보여 주십시오.》라고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뒤따르던 일꾼들이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증명서말씀니까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시고는 경비원에게 자신의 증명서를 보여 주시었다.

그이의 증명서를 받아 펼쳐본 경비원은 너무도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도 겸허하게 증명서를 보여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일꾼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저지리 천대받던 자기들에게 품속에서 바라낸 땅을 분여해주신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시었다.

경비원은 새 조국건설로 그렇게 바쁘신 그이의 시간을 지체하고 버릇없이 앞을 막아 나신 것이 너무도 인망스럽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다가 허리를 굽혀 큰절을 드리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열른 그의 두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경비를 잘 서고 있다고, 그렇게 서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토록 고마우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례하게 증명서를 요구한 자기를 탓할 대신 오히려 경비를 잘 선다고 치하해 주시니 그는 더욱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리경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29돐에 즈음하여 어머니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총련중앙일군들의 모임이 8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중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주호제1부의장, 장조직국장, 남승우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부의장, 송근학부의장 겸 교육국장, 서충연부의장 겸 국제통일국장,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중앙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허중만의장과 박주호제1부의장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맹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의 글말이 모서져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어 강추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리광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성철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회장을 비롯한 조청과 녀성동맹, 재일본조선인교직원

동맹,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재일본조선인학생동맹, 조선청년사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이날 총련 도쿄도본부부 비롯한 총련의 현본부와 지각급 학교들에서도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상에 삼가 인사를 드렸다.

본사기자

◎ 인민을 위한 철신의 길에서 ◎

절대적 기준

평양대극장건설이 마지막단계에 들어선 어느날이었다.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무대부분 지붕이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었다.

이때 건설을 책임지고있던 일꾼이 고개 숙여 대답하였다.

그러시고는 공민증에서 오손된 부분이 없는가 다스린 번 살피보신 후 소중히 품안에 넣으시었다.

선거장에 도착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공민증을 보이신 다음 선거표를 받아 투표함에 넣으시었다.

해방후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공민의 모습으로 제정된 질서를 지키시며 인민들과 똑같이 겸허하게 생활하시었다.

정녕 자신을 공화국의 수령이기 전에 나라의 평범한 공민으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위대한 한생의 갈래갈래를 열화같은 조국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중으로 수놓으셨기였다.

리경희

레지는가를 보고싶으시었다. 어느한 집에 들리시어 집주인을 하러 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 주인에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무슨 덕을 보는가고 물으시었다.

전기난방을 하였다든 대답을 들으신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몇해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문화정서생활기지에 자그마한 부족점도 있을세라 깊이 관심하시며 일군들에게 자연박물관의 특성이 살아나게 인공풀과 단쟁이덩굴을 잘 배합하여 조형예술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마크의 위치도 바로잡아주시고 출입문의 형식도 다시 정해주시였으며 건물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는 미흡한 문제점들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만하면 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있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뛰어난 안목과 끝없는 요구성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금이 들더라도 자연박물관을 세계적

본사기자